

현장시선



허영진
신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5월 1일은 한국신협이 이 땅에 태동한 지 61주년이 되는 날이다. 고리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49년에 독일에서 처음 생겨난 신협은 캐나다와 미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협은 부산의 성가신협으로 1960년 5월 1일 미국 태생의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에 의해 설립됐다. 이는 큰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당시 부산은 6·25전쟁의 후유증으로 가난과 불신의 풍조가 개인과 사회에 만연했다. 이에, 사람들은 호구지책(糊口之策)으로 살아가면서 '밥'과 '돈'을 최고의 가치로

61년 동안 평생 어부바를 실천해온 신협

삼았고, 오로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가족뿐이었던 협동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시대적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자신의 고향과 전답을 버리고 온 피난민들이 험악한 객지에서 '서로 믿고 살자'면서 자금을 모으고 운영해 그 이익을 나눠 갖자는 배당의 논리가 신뢰를 얻으면서 신협은 확산되기 시작했다. 제주지역 신협은 1962년 천주교 한림교회 주임신부였던 고(故) P.J. 맥킨치 신부(한국명 : 임피제)에 의해 설립됐다. 그는 어느 한 신자가 빛 때문에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상부상조형 은행을 만들어야겠다는 신념으로 설립했고, 이것이 계기가 돼 도내 전지역으로 확산됐다. 신협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도민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이처럼 지역민들에게 평생 어부바 정신을 실천해온 한국 신협은 지

난달 말 기준 자산 113조 4000억원으로 아시아 1위, 전세계 4위의 성과를 이뤘다. 한편, 제주지역 신협은 1962년 자산 5200원으로 시작해 현재 29개 신협, 60개의 영업점으로 확대됐고, 자산 4조 812억, 조합원 수 23만 3600여 명으로 성장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작년엔 배당금으로 도민(조합원)에게 80여억 원을 환원하는 등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했다. 그렇다면 은행과 신협의 차이는 무엇일까? 첫째, 은행의 주인은 주주이지만, 신협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조합원이 주인이자 경영자이며 이용자로서, 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총회를 통해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둘째, 은행은 자본율에 비례해 투표권을 행사하지만, 신협은 1인 1표제로써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진행된다. 셋째, 외국인 자본율이 높아 국외로 순이익이 유출되는 은행과 달리 신협의

이익은 출자배당, 복지사업 등을 통해 모두 조합원에게 되돌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런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금융협동조합의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신협은 작년 10월 22일에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축복장을 받았다. 7대 포용금융을 비롯한 서민과 소외계층과 같은 약자를 돕고 금융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신협은 경제적 약자들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자발적으로 조직한 비영리 금융협동조합이다. '일인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일인을 위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61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사람'이라는 가치만큼은 절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서민과 지역사회를 '평생 어부바' 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정직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신협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설

주민참여예산 도입 취지 제대로 살려야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는 좋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과 평가 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그렇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에 들 어간 가운데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가 이달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회의와 행정시 조정협의회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제주도 내 예산 안에 반영된다. 읍·면에 각 4억원, 동에 각 2억원씩 배정한다. 대상 사업은 지역주민 다수에게 높은 수혜가 돌아가는 파급효과 높은 사업, 일자리·주민소득 창출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 동력사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가 당초 도입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라일보가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334건에 대한 분석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다. 교통·공원·도로시설 확충 등 지역 인프라 개선사업이 215건으로 전체의 60%가 넘는다. 여기에 저소득층 방춤 교제 등을 포함하면 지역환경개선사업이 70~80% 차지한다. 일자리와 주민소득 창출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 동력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만하다.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은 높아질 수 있어도 그 효율성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여서다. 내년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 10년째다. 지금까지 딱딱 나눠주듯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본다. 주민이 제안한 사업의 적합성은 물론 파급효과까지 검토해서 예산을 차등 반영할 필요가 있다. 배정된 예산에 짜맞추는 식으로 사업이 추진돼선 안되기 때문이다.

제주 산지전자거래, '외연' 확장 더 힘써야

전국 최초의 제주산 농산물 산지전자거래가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시스템이 도내 농산물을 도매시장을 안 거쳐 바로 소비자로 배송돼 유통비 절감, 배송기간 단축에다 코로나19시대 비대면거래라는 이점까지 작용한 탓이다. 제주농업이 날이 갈수록 수입산 시장 잠식과 소비시장 변화 등으로 맥을 못추는 상황에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도가 작년 산지전자거래 성과 분석 결과 평균 가격면에서 기존 도매시장 형성 가격보다 상당폭 높았다. 노지감귤(10kg) 평균가격은 도매시장 1만5550원인 반면 산지전자거래에선 16% 높은 1만 8076원이었다. 당근(20kg 기준)은 13%, 양배추(8kg)는 35%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농민입장에서 높은 가격 외에 운송기간 단축과 유통단계 축소 등까지 감안하면 도매시장 거래보다 작물별로 20~120%까지 더 이익을 봤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핵심은 산지전자거래시스템이 향후 '외연'을 대폭 확장해야 하는 문제다. 현재 산지전자거래를 통한 농산물 거래량, 거래 참여조직이 일점포 늘었지만 같은기간 농산물 생산량이나 시장 조직 변화 등을 감안하면 아직도 '갈 길 멀다'는 평가다. 도의 매매참가조직이 전국 하 나로마트와 소비시장, 일부 중도매인 중심이다보니 2017년 이후 매년 140~160개소에 머물러 시급히 늘려야 한다. 산지전자거래가 상품을 직접 안보고 거래하는 특성상 품질과 신뢰를 함양 높여 많은 상인들을 유인해야 하는 현실도 과제다. 생산농가들도 산지거래를 제대로 이해하고, 고품질의 농산물 출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제주 산지전자거래에 이어 작년 at농식품거래소도 직거래에 뛰어들만큼 전국 온라인 유통시장 열기는 뜨겁다. 행정·농협과 농민 모두 시대흐름에 맞춰 역량을 더욱 키울 때다.

뉴스-in

LT카지노 이전 개장 시기에 '축각'

빠르면 이달에서 6월초 전망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내 LT카지노 이전 개장 시기에 축각을 곤두.

롯데관광개발은 LT카지노 개장이 늦어질수록 영업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제주도의 카지노 기구검사가 빠른 시일내 끝나기를 기대하면서 국내 외국인들을 상대로 VIP영업에 집중.

변영근 제주도카지노정책과장은 "검사가 20일에서 25일정도 소요가 된다"며 "빠르면 이달 , 늦으면 6월초에 카지노 개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교대리까지

저출생 극복 릴레이 챌린지

○...안동우 제주시장은 6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지령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참여형 캠페인인 '저출생 극복 함께해요! 범국민포(4)함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

이번 챌린지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

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동참하는 취지로 지난 2월 충청남도에서 시작돼 전국적으로 전개. 및 시장은 저출생 극복 메시지 및 사전을 SNS에 올리는 등 국민 참여 호소와 출생과 육아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공동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사안임을 환기.

서귀포시 '행복소통마당'

○...서귀포시가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기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며 눈길.

시는 최근 남원읍 의귀리와 남원2리 마을에서 '흔디 거뉘허멍 살게 마뉘'의 주제로 융·화합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행복 소통 마당'을 운영했다고 6일 발표.

시 관계자는 "올해 10개 마을을 선정, 5월 성산읍 신흥리와 남원읍인 '저출생 극복 함께해요! 범국민포(4)함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 이번 챌린지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

열린마당

'신선이 머무는 곳' 방선문



정선아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

방선문은 예로부터 비경이 으뜸가는 곳으로 우리에게 영주십경 중 하나인 '영구총화'의 발원지로도 알려져 있다. '영구'란 신선이 사는 곳이라는 뜻으로 봄철이 되면 진달래꽃과 철쭉이 만발하고 자연이 조각해놓은 기암이 곳곳에 있어 마치 신선이 사는 것처럼 절경이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로부터 시인 묵객은 물론이고 지방 관료들이 이곳을 찾아 풍류를 즐겨왔으며 그 감흥을 담아 바위 곳곳에 이름, 시구 등을 새겨놓기도 했다. 50여개의 마애명은 방선문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글귀가 선명하게 남아있어 후대에 큰 문화유산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신비롭고 특별함마저 전해주는 방선문을 널리 알리고 주민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매년 봄 방선문 계곡 일대에서 방선문 축제를 개최해 왔다. 전통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의 결과로 방선문축제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제주도 유망축제에도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대면 축제가 어려워 축제가 전면 취소됐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축제를 즐기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비대면으로 전환 개최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년처럼 현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진행되지 않는다. 대신 방선문을 배경으로 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영상 매체를 통해 방선문의 멋과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전처럼 걱정 없이 여행을 가거나 축제를 즐기기가 어려워진 요즘, 신선이 머무는 방선문에서 펼쳐지는 축제를 통해 지친 마음을 달래고 잠시 여유를 가져보길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허석훈(대한항공) 아버지 양천허공 안근(향년 80세)께서 서기 2021년 5월 6일 08시 11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5월 7일(금요일)
▶발인일시: 2021년 5월 8일(토요일) 오전 8시
▶발인장소: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아흔아홉골 선영
아들 허석훈 며느리 고주연
명훈
딸 허경미 사위 강상철
장손 허재원
손녀 허진원
혜원
유진
※ 연락처 : 허명훈 010-3693-8573
고주연 010-5093-8573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국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